자조금은 양계관련인 모두가 참여할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

WTO의 출범과 국별 FTA협정 등으로 양계산물의 전면개방은 급속히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여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양계농가의 역할이 중대에 따라 양계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양계산업을 지켜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고품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유통되어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가격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양계산물의 소비확대는 개별농가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양계농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 널 수밖에 없다.

양계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소비 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계란과 닭고기의 시장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계란과 닭고기의 시장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가격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므로 양계농가의 수익이 생산성 증대와 가격이 상승한 부분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양계자조금사업 추진이 늦어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의무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우, 낙농, 양돈의 경우
는 수입축산물과 차별 홍보와 정부의 원산지표시 시행으로 축산물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자급율이 높아지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한 이후 지난 1년간 축산물 수입은 줄고 국내산과 가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진데다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폐강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국내산을 주로 소비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계산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 전 기업화, 시설자동화와 현대화 및 규모화라는 소기의 성과는 조기에 달성하였으나, 무역자조금사업의 출발은 늦었지만, 앞으로 투명하며 공정하고, 사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집행하여 신뢰를 쌓고, 자조금 조달인 농가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와 관련업체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산란계, 육체 무역자조금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가정 경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축산자조금 사업현황은 다음 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조금 사업을 먼저 추진한 타 품목의 현제 자조금 조성액을 보면 한우가 188억원, 낙농 84억원, 양돈 15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08년 기출은 96~100%정도로 농가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양계자조금사업은 09.6.1부터 기출을 시작하였으나 육계는 계열제와 농가간 부담금 간담으로 실적이 낮지만 기출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란계는 농가 참여율이 비교적 높아서 기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고 자조금을 먼저 추진한 축종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50% 정도 자금지원을 받아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품목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계산업은 자조금사업의 발전과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뒤쳐져 정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학원수 (명)</th>
<th>관리위원 수 (명)</th>
<th>당연직</th>
<th>관리위원장</th>
<th>시행년도</th>
<th>사무국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한우</td>
<td>237</td>
<td>26</td>
<td>8</td>
<td>남호정 한우협회장</td>
<td>05.5.1</td>
<td>서초구 KFIA빌딩</td>
</tr>
<tr>
<td>낙농</td>
<td>143</td>
<td>25</td>
<td>6</td>
<td>이승호 낙농육협회장</td>
<td>06.5.1</td>
<td>서초구 세림빌딩</td>
</tr>
<tr>
<td>양돈</td>
<td>150</td>
<td>21</td>
<td>5</td>
<td>윤상익 양육협회장</td>
<td>04.4.1</td>
<td>aT센터</td>
</tr>
<tr>
<td>육계</td>
<td>135</td>
<td>17</td>
<td>8</td>
<td>이준동 양계협회장</td>
<td>09.6.1</td>
<td>대한양계협회 (임시)</td>
</tr>
<tr>
<td>산란계</td>
<td>77</td>
<td>21</td>
<td>7</td>
<td>이상호 산란농장 대표</td>
<td>09.6.1</td>
<td>대한양계협회 (임시)</td>
</tr>
</tbody>
</table>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거출 기준</th>
<th>2008년 조성실적</th>
<th>2009년 농가분 가출</th>
<th>(단위 : 백만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농가 거출 (단출율)</td>
<td>정부보조</td>
<td>소계</td>
</tr>
<tr>
<td>한우</td>
<td>12만원/두</td>
<td>10,787 (90.5%)</td>
<td>8,000</td>
<td>18,787</td>
</tr>
<tr>
<td>낙농</td>
<td>2명/기</td>
<td>4,168 (99.9%)</td>
<td>4,200</td>
<td>8,368</td>
</tr>
<tr>
<td>양돈</td>
<td>6명/두</td>
<td>7,607 (95.5%)</td>
<td>7,400</td>
<td>15,007</td>
</tr>
<tr>
<td>육계</td>
<td>5명/수</td>
<td>-</td>
<td>-</td>
<td>-</td>
</tr>
<tr>
<td>산란계</td>
<td>100만원/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이익잉여금 제외(산란의 경우 연간 이익잉여금은 약 10억원 수준임)
부보조금지원을 그만큼 못 받고 있어 너무 아쉽다. 또한 한우, 낙농, 양돈의 경우는 자조금 사업 추진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 더 높아졌고 소비확대 및 가격안정, 신기술 교육을 통한 다양한 기술과 경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다수 생산자가 수혜를 받고 있어 참여농가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자조금사업이 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조금사업으로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란 및 닭고기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낮다

국제 사료곡물가격 급등과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양계농가 생산비는 증가하고, 악성집단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농가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닭고기의 영양학적 가치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소비량이 현저히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주요국의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을 보면 미국 45kg, 영국 23kg, 브라질 36kg, 일본 15kg, 한국 8.6kg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낮은 편이다. 선진국일수록 성인병예방을 위하여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동물성단백질식품과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식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비홍보 미흡으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육계자조금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요리 개발과 닭고기 우수성 홍보로 닭고기 시장을 농가 스스로가 확대해 육계산업의 미래도 보장이 될 수 있다.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고 하며, 신선생물한 식품이라고도 한다. 계란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흡수성이 좋으므로 영양학적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유일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가별 연간 1인당 계란소비량은 미국 256개, 덴마크 276개, 일본 330개, 한국 200개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계란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아주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계란의 가치와 기능을 잘 알고서 마음속 깊이 좋지 않은 식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급식품 계란이 저급식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55g의 계란 속의 진실과 가치에 적합한 유행식품으로써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양계농가가 우수식품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양계 자조금사업 안정적인 정책방안

양계자조금이란 말 그대로 생산농가가 양계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스스로 조성한 돈이다. 양계농가의 가축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산란 및 육계자조금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의 성격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임승차 배제 원칙을 들고 있다.

모든 양계농가는 자신의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 혹시 이 옷농가에서 자조금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거나 참여를 기피하면 설득을 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무임승차 배제 원칙에 따라 인권되는 양계 관련업계 및 유통업체 등도 해당 양계산업 발전의 효과를 보는 만큼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여 납부도
등참해야 한다.

자조금은 품목별로 실시되고, 생산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계농가는 자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자조금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 또는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쉽지는 않으므로 관련협회나 농협에서는 각종 양계인 모임에서 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농부가 양계수입으로 계란자조금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서 한국계산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란에서 1개당 0.35원 정도 기준으로 가중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노계 1수당 100원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반드시 모든 농가가 무임승차 없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조금사업의 실질적인 주력수행자는 자조금제도의 운영자인 대의원회, 관리위원회, 수납기관, 축산단체, 정부 등의 관계자이다.

이들은 각 기능별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이루어야 사업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담당기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신뢰가 높아 양계 자조금 사업이 조기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조금의 주체인 양계농업이 정책방안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관리하고 자조금 당국 스스로가 시민적 상황과 입법취지에 분명 명확한 정책에 적합한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성공적인 자조금사업 수행의 일반적인 여건 가운데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의 지원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요건이다. 자조금의 이론이나 실제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 실증연구, 그리고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의 효과 없이는 자조금의 정착, 발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원부문의 응바른 이해가 축구되어 자조금제도의 정책적인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야한다. 양계자조금사업은 소비자에게 향하는 활동이며 농가뿐 아니라 축제, 부화업, 사료, 부품악품 및 기자재와, 가공 및 유통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양계 관련 산업 모두가 참여하여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끝을 맺으며

축산자조금은 농가와 축산업을 위한 것이지 특정단체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조금 집행시에는 특히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타 품목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과 자료에 의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특정단체도 있었으며, 행사시 영수증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 일부시정명령을 받았다. 지금은 자조금사업이 초기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반복된다면 자조금사업이 정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자조금 집행시에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축산자조금은 양축농가에게 준법적 상승을 둘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정부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적절한 문제를 적발했을 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모두 환수조치하고 긍정한 제개가 따라야 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계 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초기에 정착되어야만 양계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양계산업과 관련 산업도 더불어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월간양계 2009, 10월호 113